

백절불굴, 백전백승하는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로 반미대결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근대와 세기를 이어 결전한 대적의 지를 백배, 천배로 만장약하며 조국수호의 역센 보검을 버려온 공화국인민은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의 회열에 넘쳐있던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뜨운 미제의 만고죄악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격렬한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이 행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정의와 평화의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야망과 본성을 세세년년 되새겨주는 역사의 날에 즈음하여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가 6월 25일 5월1일경기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시안의 12만여명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여온 집회장소에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장장 70여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

쌓아온 미제국주의에 대한 서리받치는 증오와 보복의지가 차고넘치었다. 리일환, 박태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승국 내각 부총리, 리두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근로단체,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최희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용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허준금 락랑구역 금대농장 경리, 김주혁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에 의하여 참혹한 전쟁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6월 25일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가실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힘이 강하였더라면 6.25와 같은 천추의 한은 없었을것이며 조국강토가 무고한 선혈로 물젖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라는 역사의 이 물음에 바로 70여년전의 피맺힌 일요일이 대답을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총대가 강해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자위적국방건설 사상을 받들어 미제를 징벌할 최강의 절대병기,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 못하게 할 자위적전쟁역제력을 억척같이 틀어쥐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원자탄사용까지 공언하였던 미제가 오늘도 민족의 극악한 원수인 남조선역적패당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부추기며 군사적대결과 핵전쟁연

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침략자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락언하였다. 오늘의 참예한 정세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급도,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침략전쟁도발에 환장이 된 미제는 북수의 의지로 무섭게 달아오른 이 땅의 열기가 최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향해 폭풍쳐가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투철한 주적관, 반미계급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며 민간부력의 싸움준비,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국주의와의 총결산은 더는 미물수

없는 우리 세대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불굴의 대적의지로 만장약한 이 땅의 북수자들은 단호한 보복성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박멸을 선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년속적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오르는 북수의 열기를 분출시키는 구호들과 원수격멸의 함성이 6월의 하늘가를 진감하였다. 이어 군중시위가 진행되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반공화국압살의 개꿈을 버리지 못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일삼고있는 미제와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떨치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행진해나갔다. 만일 적들이 신성한 내 조국의 0.001mm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전민항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세기를 두고 싸

이고 쌓인 분노와 증오의 폭발로, 다시 고다져온 공화국의 불가항력으로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을 무자비하게 들부서버릴 의지가 격려되어 끓어올랐다. 시위대오마다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 매진분투함으로써 전면적국가부흥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갈 혁명적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는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결절한 혁명신념과 역센 투지로 노도와 같이 진군하여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갈 수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전위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 공화국의 각 도들에서 진행

